

전시리뷰

《甲子萬年：國立故宮博物院百年院慶特展》

2025년 10월 4일 ~ 2026년 1월 4일

國立故宮博物院

北院: 臺北市士林區至善路二段221號

南院: 嘉義縣太保市故宮大道888號

이정은*

1925년 10월 10일 자금성에 고궁박물관이 정식 설립되며 청 황실 소장품은 공공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은 개관 100주년이자 1965년 타이완 이전 후 ‘국립고궁박물관’ 설립 60주년, 2015년 남원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한 갑자 60년의 발자취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甲子萬年：國立故宮博物院百年院慶特展》이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모두 ‘문을 열고 역사를 마주하다(開門見山)’, ‘세계를 만나다(相遇寶宇)’, ‘만물의 시선이 교차하다(萬象交織)’ 그리고 ‘미래를 맞이하다(迎向未來)’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문을 열고 역사를 마주하다’는 청 궁정 소장품을 기반으로 고궁박물관의 소장 체계가 어떻게 구축·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원이다. 자금성 유물 조사 기록이자 최초 소장품 목록인 『故宮物品點查報告』와 그에 수록된 北宋 汝窯 〈青瓷無紋水仙盆〉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南薰殿 소장의 명대 황제·황후 반신상과 文淵閣의 『四庫全書』도 소개된다. 또한 중앙박물관 합병 유물 〈西周初期 矢令方尊〉과 구입 유물 北宋 蘇東坡, 〈書黃州寒食詩〉를 통해 소장품 확장의 흐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원은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이후 이어 온 국제 교류의 흐름을 조망하며 주요 해

* 國立臺灣大學 博士



國立故宮博物院 陳守昱 제공

의 전시 사례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자기 제시 방식과 그에 대한 인식의 형성을 보여준다. 1935년 런던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hinese Art》에 출품된 北宋 汝窯 〈青瓷奉華銘紙槌瓶〉은 당시 여요 도자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드러내며, 2011년 《山水合璧: 黃公望與富春山居圖特展》에서 浙江省博物館 소장 〈剩山圖〉와 함께 전시된 元 黃公望, 〈富春山居圖〉는 박물관 간 협력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읽힌다.

세 번째 단원은 약 70만 건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유물 해석과 정리의 축적 과정을 조망한다. 목록화와 명명, 연대 추정, 자료 정리와 출판, 이미지 기록 등을 통해 소장품의 위상과 특색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고궁박물관 복원과 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주제로 고궁박물관의 대표작 宋 范寬, 〈谿山行旅圖〉, 宋 郭熙, 〈早春圖〉, 宋 李唐, 〈萬壑松風圖〉가 최초로 남원에 전시되어 주목받았다.

네 번째 단원은 과학적 분석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진전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유물 연구의 시야를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으로 읽힌다. 그 예로 대표 소장품의 하나인 淸 十九世紀 〈鏤雕象牙雲龍紋套球〉의 컴퓨터 단층 스캔 기술과 3D 영상 처리를 통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개관 100주년이라는 시간적 맥락 속에서 소장품의 형성, 국제 교류, 연구 축적, 그리고 기술 기반의 미래 비전까지를 유기적으로 조망한 기획으로 평가된다. 고궁박물원이 걸어온 역사와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다음 백 년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로 읽힌다.